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4.11(금) ~ 2025.4.17(목)

제공일시 2025 4 25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 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4.11(금) ~ 2025.4.17(목)

제공일시 2025 4 2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글로벌 정책

### 1. IMO, 美반대 속 '탄소 비용' 등 해운 온실가스 감축조치 의결

-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이 미국의 반대 속에 세계 첫 탄소 배출 가격 책정 시스템을 포함한 해운 온실가스 감축 규제 조치를 의결함. IMO는 11일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를 승인함
- 오는 2027년부터 국제 항해를 하는 5천톤(t) 이상의 선박은 선박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에 적용되는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를 준수하지 못한 선박이 운항하려면 IMO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내야 함
- 이 조치는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돼 오는 10월 IMO에서 채택된 뒤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임

[\(연합뉴스 2025.4.12\)](#)

### 2. EU, 산림훼손 제품 수입제한법 완화... 韓행정부담도 줄듯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간소화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힘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 27개국 전역에서 판매가 원천 차단되며, 규정 위반 시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와 이를 이용해 만든 타이어 등 파생상품이 적용 대상임
- 개정안에 따르면, EU 수입품 선적 시마다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기존 계획 대신 연 1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됨. 기업의 공급망 하위 단계에 대한 점검 의무도 완화할 방침임

[\(TV조선 2025.4.16\)](#)

### 3. 中희토류 무기화... 백악관 "수출통제 우려, 모든 옵션 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격에 따른 보복 조치로 중국이 희토류 자원 수출을 틀어막음. 국방·에너지 등 첨단 산업에 쓰이는 희토류를 무기화해 미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임
- 희토류의 대중(對中)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미국은 모든 대응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임
- 중국의 이번 수출 제한 조치로 타격을 받게 된 곳은 미국뿐만이 아님. 한국 역시 희토류와 핵심 광물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배터리 업계도 영향을 피하기 힘들 전망임

[\(아시아경제 2025.4.15\)](#)

## 국내 정책

### 1. 정부, 33조 투자해 반도체 글로벌 시장 선점 나선다… 시스템반도체·팹리스 본격 육성

-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함. 이와 함께 시스템반도체와 팹리스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지원도 본격화함

- 정부는 15일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함. 올해부터 3년간 총 3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 △차세대 기술 개발 △우수 인재 확보 등 4대 분야에서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함

- 차세대 AI 반도체로 불리는 NPU(Neural Processing Unit),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통하는 PIM(Processing In Memory), K-클라우드 등 첨단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투자도 15% 이상 확대함. 반도체 기업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함

[\(매일신문 2025.4.15\)](#)

### 2. 정부, 공급망 불안에 핵심광물 재자원화 속도… 관계부처 TF 가동

- 정부가 핵심광물 재자원화(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TF를 가동함

-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핵심 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 방안’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연내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힘

-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정책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TF의 역할과 관계 부처 간 협업 필요 사항을 논의함

- TF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 현안과 부처간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월별 이행상황을 점검·조율해 나갈 계획임

[\(뉴시스 2025.4.16\)](#)

### 3. ‘생산자 재활용 의무’ 전자제품 전체로 확대… 의료·군수품 제외

- 의류 건조기와 휴대용 선풍기처럼 많이 사용되는데도 생산자가 폐제품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전기·전자제품이 대상에 포함됨

- 환경부는 14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힘

-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적용 전기·전자제품을 세탁기와 냉장고 등 50종에서 의료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임

- 환경부는 새로 재활용 의무를 부과받는 업자들이 직접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공제조합에 부담금을 내고 대행시킬 것으로 봄

[\(연합뉴스 2025.4.14\)](#)

## 글로벌 기업

### 1. 트럼프 관세에 혼다, 加·멕시코 생산 차량 美서 조립 검토

- 1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는 일본 닛케이를 인용해, 혼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생산량을 대폭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혼다는 앞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사 자동차의 90%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혼다는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각각 생산하고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CR-V와 HR-V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파이낸셜뉴스 2025.4.16\)](#)

### 2. 중국 트리나솔라, 연 500대 고효율 전해조 체제... 산업용 수소 경쟁력 강화

- 기후 테크 전문 매체 클린테크니카는 12일(현지시간) 중국 태양광 기업인 트리나솔라가 중국에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의 효율 신기록을 수립하고,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수소 생산과 연계하는 통합 솔루션으로 산업용 수소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함
- 트리나솔라는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연간 최대 500대의 전해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도 구축 중임

[\(임팩트온 2025.4.15\)](#)

### 3. GM, 美 현지 LFP 각형 수급 검토... 삼성SDI·LG엔솔 경합

-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장기적인 전기차 성장 전략을 위해 미국 현지 리튬인산철(LFP) 기반 각형 배터리 공급처 확보에 나섬
- 중국 업체의 미국 진출이 어려운 만큼 GM에 납품하는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 관련 수주에서 경합할 것으로 전망됨

[\(디지털데일리 2025.4.16\)](#)

### 4. 아이폰 생산 폭스콘, 日 전기차 시장에 진출

- 세계 최대 위탁 제조 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아이폰을 넘어 전기차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로이터 등에 따르면, 대만 폭스콘은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전기 자동차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일본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함
- 폭스콘은 2027년까지 일본 시장에 승용차와 버스 등 전기차 모델 3종을 선보일 계획임. 폭스콘이 어떤 일본 자동차 회사와 협력하는지는 이날 공개되지 않음

[\(조선일보 2025.4.14\)](#)

## 국내 기업

### 1. 삼성E&A, UAE서 중동 최초 생분해성 플라스틱 플랜트 수주... 친환경 플랜트 시장 본격 진출

- 삼성E&A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위치한 에미레이트 바이오테크 본사에서 '팔콘 생분해성 플라스틱 프로젝트(Falcon PLA Project)'의 Pre-EPC(설계·조달·시공 전 단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힘
- 이번 계약은 기본설계와 함께 EPC 예산 산출 등의 사전 업무를 포함함
- 이번 프로젝트는 아부다비 칼리파 경제자유구역(KEZAD)에 건설될 예정임
- 삼성E&A는 이번 수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야에 첫 발을 내디뎠으며, 에미레이트 바이오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플랜트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힌다는 전략임

[\(S-저널 2025.4.15\)](#)

### 2. LG엔솔, 댕옴론과 수천억 규모 ESS 배터리 공급 논의

- LG에너지솔루션이 일본 전자업체 댕옴론(Omron)에 ESS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짐
- 댕옴론은 기존에도 LG에너지솔루션과 거래한 적이 있는 파트너사임
- 업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만큼 수주금액도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일단 수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디지털타임스 2025.4.15\)](#)

### 3. SK테스, 호주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 추진

- SK테스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헤더브레이에 연간 최대 1000톤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고 독일 재활용·폐기물 전문 매체 오이비트 리사이클링이 지난 15일(현지시각) 보도함
- 전자 및 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인 SK테스는 국제적인 확장의 일환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외신은 전함
- SK테스는 이 공장이 뉴사우스웨일스주 최초의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시설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글로벌이코노믹 2025.4.16\)](#)

### 4. 라이벌이 동지로... 포스코·현대제철, 美관세 맞서 '씻물' 합친다

- 국내 1위 철강업체인 포스코가 '넘버2'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에 짓는 일관제철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함
- 포스코가 제철소 건립 자금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생산량 중 일부를 넘겨받는 방안 등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한국경제 2025.4.13\)](#)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4.11(금) ~ 2025.4.17(목)

제공일시 2025 4 2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U, 올해 재생에너지 설비 사상 최대 신규 설치 전망

- 유럽연합(EU)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전망 자료를 발표하면서, 올해 총 89기가와트(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EU 전역에 신규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음. 이 가운데 태양광이 70GW, 풍력이 19GW를 차지해 연간 설치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가 될 것으로 보임
- 지난해 신규 설치된 재생에너지 규모는 태양광 65.5GW, 풍력 12.9GW로 집계됐음. 올해 예상치가 이를 넘어설 경우, 태양광은 전년 대비 6.8%, 풍력은 47% 이상 늘어나는 셈임. 다만, 일각에서는 인허가 지연, 정부 보조금 축소, 정책 변화 등의 영향으로 업계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음
- EU는 2030년 기후목표 달성과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 목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음.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42.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에 따라 풍력발전 설비를 현 220GW에서 425GW로 확장할 계획임
- 그러나 로이터는 공급망 병목과 전력망 연결 지연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음
- 산업단체 윈드유럽(WindEurope)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서 총 500GW가 넘는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전력망 연결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 등 주요국에서 전력망 승인 대기 중인 풍력 프로젝트는 총 500GW 이상에 이르렀음
- 윈드유럽은 대기 중인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거나,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일부는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음. 이미 사업성이 검증된 프로젝트조차 선착순 심사 방식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실제 발전소가 완공된 이후에도 전력망 연결이 지연돼 상업운전이 늦어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유럽 최대 풍력 개발업체 오스테드(Orsted)도 최근 업계 전반이 원자재 비용 상승과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스테드는 지난 10일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두 대형 풍력 프로젝트인 ‘레볼루션 윈드’와 ‘선라이즈 윈드’가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새로운 관세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음
- EU집행위는 향후 재생에너지 설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기 투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조율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음
- 태양광 부문도 양적 성장은 이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성장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 단체 솔라파워유럽(SolarPower Europe)은 프랑스가 2월 발표한 지붕형 태양광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축소 방침으로 인해 2025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 EU가 2030년까지 설정한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70GW의 태양광 설비를 지속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지난해 유럽 내 태양광 설비 신규 설치는 65.5GW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증가율은 4%에 그쳤음. 이는 지난 수년 간 40-50% 이상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임

- 솔라파워유럽 CEO 발부르가 헤메츠베르거는 “올해 초 이후 일부 국가의 정책 후퇴가 이어지면서 올해 70GW 달성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는 시장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EU의 청정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음

- 로이터는 “이번 전망치는 EU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산업계의 공급 역량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나왔다”며 “유럽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잘 잡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음

[\(임팩트온 2025.4.14\)](#)